연말 '전면적 인적쇄신론' 실체 있나

靑, 새해 예산안·민생처리 부담 내년 초 개각 검토

이재오 등 '개국공신 그룹 대거 입각설' 변수 될 듯

최근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조차 연말 '전면적 인적쇄신'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 2년차를 목전에 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각에 부정적인 청와대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는 개각 대상과 관련, '3수 1관'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개각에 대한 예측이 난무한 상황이다.

물론 9일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개각에 대해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개각론이 본격화될 경우 발생할 정치적 논란과 인사청문회 등에 따른 국정공백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개각 분위기를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여당의 국정쇄신 요구는 겸허하게 청취하고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경제난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개각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더욱이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으로 잦아들었던 경제팀 개편 주장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으로 재점화되면서 개각론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따라서 개각의 시점과 관련, 연말보다는 내년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 일정상 연말 개각을 단행할 경우 새해 예산안이나 민생법안 처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참모는 "내년 설 이전에 신년구상 차원에서 단행하는 방안과 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인 내년 2월말을 전후로 단행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유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각의 시기는 폭과도 맞물려 있다고 보면 된다"며 "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로 미뤄 대폭 개각 가능성은 낮지만 늦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기 복귀설이 나오고 있는 이재오 전 의원 등 이른바 '개국공신 그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대거 입각설도 개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른바 '친정체제 구축론'으로 불리는 이런 주장은 집권 초기 새 정부의 개혁정책이 힘을 받지 못한 원인이 '쇠고기 파동'이나 '미국발(發) 금융위기' 등 돌발변수 외에 이 대통령을 도와 정권을 창출한 측근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아울러 여당 내에서는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둘러싼 논란을 거론하며 정무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야권 "강만수 경질" 총공세

잇단 말실수…자질시비로 번져

야권은 8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을 걸어 최근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이후 주춤거렸던 강 장관에 대한 경질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도 필요하지만 발언 자체가 사법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법적·도의적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 장관은 취임 후 8개월간 경제에 악영향을 준 데다 한·미 통화스와프의 경우도 한국은행의 공로를 가로채는 치졸한 모습을 보였다"며 "실물경제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신뢰가 무너진 강 장관이 자리를 지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강 장관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교양과 상식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경제 장관으로서의 실정도 8개월간 누누이 지적해 왔는데, 더 이상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강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강 장관의 경질은 당연하고 한승수 총리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상시국회 도입, 감사 기능 국회 이관돼야"

국회의장 자문 기구 '일하는 국회' 방안 제시

매달 1일 자동으로 국회가 개회되는 '상시국회'를 도입하고 예산·법률심사의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국회 차원의 개혁방안이 제시됐다. 또 감사기능을 국회에 이관하는 방안과 국회 출석명령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징역형만을 부과하는 방안 등도 검토 과제로 제안됐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제1차 제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여야 정당이 추천한 의회정치 관련 외부전문가 16명으로 지난 9월 구성돼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이날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제안에 따르면 현행 국회 회기는 9월에 정기국회를, 재적의원 4분의 1요구로 임시국회를 각각 열 수 있지만 '상시국회' 계획이 도입되면 매달 1일 자동 개회된다. 상시국회 도입은 헌법개정 사항인만큼 개헌 전에는 국회법을 고쳐 매달 임시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자문위는 제안했다.

또 9월에 일괄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는 상임위별로 20일 안에서 시기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 경우 국감이 5~8월 중 주요 업무별로 4~5차례 열리고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완료되는 만큼 국감 결과를 토대로 한 예산.법률심사가 강화되고,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며 예산안 심사도 법정기한 내 완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자문위는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예산심사소위 위주의 소위제도를 전면 개편, 주제·내용별 상설소위 구성의 의무화를 제시했다. 위원회의 모든 안건은 소위에 자동 회부되며 소위는 청문회의 개최권한도 갖도록 했다. 청문회제도도 입법·정책·감사·인사청문회로 나누고,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의 경우 정무위,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대법관 등은 법사위 등 해당 상임위에서 실시토록 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본회의 의결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상임위 차원의 실시가 가능토록 제안됐으며, 대정부질문 제도의 범위를 대폭 줄여 본회의에서만 국무총리에 대해서만 질문토록 하고 각 부처장관은 해당 상임위에서 질문토록 했다. /연합뉴스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심지연(가운데)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상시국회와 상시국감 도입 및 상설소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국회운영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정성에 의구심…호남 인재 등 돌려"

한나라 인재영입위 광주 간담회

'인재 발굴' 다양한 전략 제시돼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정의화) 간담회가 지난 7일 광주 금수장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한나라당에 대한 호남인들의 신랄할 비판과 다양한 호남 인재 영입 전략이 제시됐다.

인재영입위원회의 광주지역 간담회는 지난 7월 박희태 대표체제가 출범한 뒤 충북 청주에서 열린데 이어 두번째로, 집권여당이 된 뒤 처음 맞는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이정현·안형환 의원, 박재순 최고위원, 김태욱 시당위원장과 김윤수 전남대 총장, 김혁종 광주대 총장, 장만채 순천대 총장과 김홍균·문덕형 광주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인재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성 지역활성화연구소장은 이날 '호남 인재영입,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금 한나라당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수한 인재만 서둘러서 거두려는 조급성을 버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살을 부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한나라당은 호남지역에서 삼고초려를 해도 손사래를 치는 등 인재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 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이어 ▲비당원이라도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조직만 유지하는 정당에 그치지 말고 지역 핵심현안에 대한 각계 목소리를 듣고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외 이명박 정부의 인사시스템 개선 방안을 비롯, 지방 인재 등용 제도화 및 중앙정부 장·차관급 30% 이상 배치, 국무회의의 지방 순회 개최 등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인재영입위원회는 내년 2월 전북과 충남에서도 간담회를 가진 뒤 4차례 지방순회 결과를 정리, 내년 4월 재·보궐선거의 공천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교육대/서울대/연고대와 명문대 합격을 위한 재수생 전문 종합반 광주일동학원의
재수생 선행학습반 / 예비고①②③년 교육대·서울대·연고대·명문대 목표반 안내
2009년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을 위한 대수능 선행 학습반 모집
▪대수능 기본 다지기
▪1일 9교시 + 토요일 Test(4교시)
▪언어, 외국어, 수리, 탐구 영역 기초부터
▪수리영역 : 수학10-가부터 수1까지
▪검정고시와 수능을 동시에 준비하는 수험생
▪졸업을 앞둔 현 고3년생과 예비역
▪수강료 : 37만 6백원
개강 12월 3일(수)
3개월 완성 (12월, 1월, 2월)
9월 4일 교평 전과목 최상위 1등급 3명 현, 수강 중
교육대/서울대·연고대·명문대 목표반
예비고①, ②, ③학년 언·수·외 주말 담과 연합반
▪강의 기간 : 3개월 학기제
▪강의 시간 : 50분단위 18시간 – 토요일 오후 2:30/저녁 7:00 – 일요일 오전 10:00시부터
▪모집반 : 인문계 2반, 자연계 2반
▪장학금 : 입학 언·수·외 합 3등급 / 광주시내 등고교사 자녀 / 매월 성적 우수자
▪강사 : 광주일동학원 재수생 서울대 종합반 강사진
▪탐구반 대표강사진 : 과탐 배철훈(화학) 선생/ 사탐 문병균(국사) 선생
▪수강료 : 과목당 15만원
개강 11월 22일(토)
명문대 합격생들에게 검증된 적중력있는 강사진
-예비고②는 내신과 수능 동시 / 예비고③는 수능 만점대비
-원칙적으로 모의고사 3등급 이상 입학 (원장 직접 상담)
(←찾아오시는 길 : 전남여고 후문과 동부경찰서 사이 또는 문화의 전당에서 동부경찰서에서 전남여고 가는 길)
광주 일동학원 062)227-2588

수완지구
분양 월드 메디컬 센터
지하1층, 지상5층
▶수완지구 최고 중심상권
▶일일교통량 최다 승강장 옆
▶병·의원 입점 최적위치
▶수완지구 최고위치
▶경쟁력 있는 최저분양가격 (선점의 기회)
▶소아과, 내과,이비인후과 환영
▶2009년 3월 준공
-현장을 방문하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치에 반하고 가격에 놀라는 그곳
월드메디컬센터
☎ 062) 952-1033, 010-7723-1033

이태리 앤틱, 클래식가구 50% ▶
엔틱가구 ANTIQUE
클래식가구 CLASSIC
100% 친환경원목 뒷면,안,밑면까지 모두 원목사용 폴더가구,서재,주방,침실가구 1500 아이템 독성물 방출하여 암발생, 아토피를 유발하는 베니어, 엠디에프 같은 화학나무를 단 1%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총판 런칭 기념으로 50%파격세일!!
11월 16일까지
프랑스 앤틱원목가구 50% ▶
친환경 앤틱원목가구
서재, 침실, 주방, TV장, 800종류
서재가구 LIBRARY
컴퓨터 책상, 책장, 학생용·중역용 80종류
(주)홍스페이스 가구 빌딩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구도청 옆)
062) 226-7565~7
100% MADE IN ITALY 홍스페이스는 호남유일의 이태리가구 직수입 전문점입니다. www.hongspace.kr
시중 앤틱 클래식가구 98%는 중국산입니다.
지하1.2층 : 365일 50% 세일가구 1.2층 : 오리지널 이태리가구 3.4층 : 친환경 원목가구 5층 : 소파 할인매장